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메타분석: 국내 문헌을 대상으로*

김상희(주저자)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소 박사후연구원
(ksh@pusan.ac.kr)
김종기(교신저자)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jkkim1@pusan.ac.kr)

국내 프라이버시 연구는 최근 들어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프라이버시 연구를 수집하여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파악해보고 향후 연구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온 프라이버시 염려 구성개념을 중심으로 국내문헌을 수집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라이버시 염려의 측정모형을 기준으로 연구를 통합하였으며, 프라이버시 염려와 다른 요인과의 관계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프라이버시 염려의 선행요인은 국외문헌에서처럼 다양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크게 개인적 특성, 상대방 주체의 특성, 사회적 특성, 정보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프라이버시 염려 구성개념은 대부분 단일차원으로 측정되어 왔으며, 다차원 관점의 연구는 주로 CFIP와 IUIPC 모델에 의해 측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지날수록 다차원 측정모형을 적용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명확한 이해없이 무분별하게 측정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프라이버시 연구의 전반적인 동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국내 프라이버시 연구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프라이버시 염려, CFIP, IUIPC, 프라이버시 인덱스, 메타분석

1. 서론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프라이버시 염려는 프라이버시를 측정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동안 다양한 연구를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신념 및 행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온·오프라인에 제공한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경험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프라이버시 염려가 개인의 신념이나 행동에 있어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최근에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행동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프라이버시 역설 관점에서의 연구가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들은 프라이버시 염려가 낮을수록 프라이버시 행동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연구에 대한 반직관적인 현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듯 현시점에서 그동안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온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정보 프라이버시 분야에서는 오랫동안 수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으며, 이들을 통합한 연구도 다소 존재한다(Li, 2011; Smith et al., 2011; Li,

2012). 그러나 국내 프라이버시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아직은 부족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동안 국내에서 수행된 프라이버시 연구를 수집하여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면밀히 파악해보고 향후 연구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해 다루는 기존의 국내 문헌을 수집하여 프라이버시 염려 구성개념을 중심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프라이버시 염려의 대표적인 측정모형을 기준으로 통합하여 프라이버시 염려 구성개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그동안 국내 프라이버시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를 중심으로 어떠한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이 함께 연구되어 왔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그동안 다루어져 왔던 국내 프라이버시 연구에 대한 통합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전반적인 연구동향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질문 1: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측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
- 연구질문 2: 프라이버시 염려와 다른 요인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프라이버시 염려

초기 프라이버시(privacy)는 ‘개인 사생활에 대한 권리’로 정의되었다. 정보기술의 발달로 소비자의 개인정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수집되어 거대한 양이 축적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 분야에서는 프라이버시를 정보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자신의 개인정

〈표 1〉 프라이버시 염려의 측정모형

척도	연구자	측정모형	구성개념
다차원	Smith et al.(1996)	CFIP	수집(4항목) 비권한의 이차적 사용(4항목) 부적절한 접근(3항목) 오류(4항목)
	Malhotra et al.(2004)	IUIPC	수집(3항목) 통제(3항목) 인식(4항목)
	Westin(1991)	Privacy Index	프라이버시 근본주의자 프라이버시 무관심자 프라이버시 실용주의자
	Dinev and Hart(2004)	IPC	오용(4항목) 발견(3항목)
단일차원	Dinev and Hart(2005-6) Dinev and Hart(2006)	IPC	단일차원(4항목)
	Buchanan et al.(2007)	OPC	단일차원(16항목)

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Stone et al., 1983; Pavlou, 2011). 이를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라 한다.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프라이버시는 주로 프라이버시 염려(privacy concern)라는 개념으로 측정되어 왔다. 프라이버시 염려는 많은 연구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지만, 공통적으로 프라이버시의 통제권을 잃는 것에 대한 염려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프라이버시 염려는 프라이버시를 측정하는 핵심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온 만큼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측정모델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Smith et al.(1996)의 CFIP(concerns for information privacy) 모델, Malhotra et al.(2004)의 UIIPC(internet user's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모델, Westin(1991)이 개발한 프라이버시 인덱스(privacy index) 모델, Dinev and Hart(2004)의 IPC(internet privacy concern) 모델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측정모델은 이후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2.1 CFIP

Smith et al.(1996)은 조직의 정보 프라이버시 실행(Information Privacy Practices)에 대한 개인의 염려를 보다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CFIP 모델을 개발하였다. 83명의 금융기관 전문가 및 직원과 18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여 15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CFIP 모델은 수집(collection), 비권한의 이차적 사용(unauthorized secondary use), 부적절한 접근(improper access), 오류(errors)의 네 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하위차원에 대한 측정항목이 존재한다. 이때, 수집은 개인정보가 기업의 데이터 베이스에 수집되고 저장되는 것에 대한 염려, 비권한의 이차적 사용은 개인정보가 허가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염려, 부적절한 접근은 개인정보가 권한이 없는 다른 사람에 의해 이용되는 것에 대한 염려, 오류는 개인정보의 의도적 혹은 사 고적인 오류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호되는지와 관련된 염려를 의미한다.

Smith et al.(1996)의 CFIP 모델은 이후 Stewart and Segars(2002)의 연구에서 상위의 단일차원 개념인 2차 요인(second-order factor)으로 측정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CFIP 모델은 이후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고자 활발히 사용되어 왔다(Korzaan and Boswell, 2008; Kumar et al., 2008; Van Slyke et al., 2006; Xu et al., 2012; Yang, 2012).

2.2 UIIPC

Smith et al.(1996)의 CFIP 모델은 오프라인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온라인 환경에 적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Malhotra et al., 2004).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환경은 오프라인 환경과는 달리 개인정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온라인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CFIP 모델과는 다른 측정도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Malhotra et al.(2004)은 기업과 소비자의 교환관계에 있어 공정성을 고려하는 사회계약이론(social contract theory)을 기반으로 UIIPC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환경에서 소비자가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기업이 개인정보의 사용에 대해 명확하게 공지하고 있을 때 소비자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인지하게 된다.

Malhotra et al.(2004)의 IUIPC 모델은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기 위해 수집(collection), 통제(control), 인식(awareness)의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구분하고, 이를 2차 요인 구성개념으로 측정하고 있다. 수집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하여 염려하는 정도, 통제는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력 정도, 인식은 수집된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후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IUIPC 모델은 CFIP 모델과 더불어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기 위해 활발히 사용되어 왔다.

2.3 Privacy Index

Westin(1991)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을 분류하는 지표인 프라이버시 인덱스를 개발하였다. 프라이버시 인덱스는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세 가지 측정항목으로 구성되며, 이에 대해 '아주 동의함, 다소 동의함, 다소 동의하지 않음, 아주 동의하지 않음'의 네 가지 척도로 측정한다. 세 가지 측정항목 중 첫 번째 항목에 대해 동의하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프라이버시 근본주의자(privacy fundamentalist), 첫 번째 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항목에 대해 동의하면 프라이버시 무관심자(privacy unconcerned), 그 외에는 프라이버시 실용주의자(privacy pragmatist)로 분류한다.

프라이버시 근본주의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에 대해 의심이 많으며 개인정보의 이차적 사용에 관하여 매우 걱정하는 경향이 있는 프

라이버시 염려 수준이 가장 높은 집단이다. 프라이버시 실용주의자는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이 제공하는 이익과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꼼꼼히 따져보는 경향이 있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중간 수준인 집단이다. 프라이버시 무관심자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기업을 신뢰하여 기업이 수행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절차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경향이 있는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이 가장 낮은 집단이다.

Westin은 프라이버시 인덱스를 개발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중단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근본주의자의 비율은 크게 변함이 없지만, 프라이버시 실용주의자는 증가하고 프라이버시 무관심자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Harris Interactive, 2003). 즉, 개인의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4 IPC

Dinev and Hart(2004)의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Smith et al.(1996)에서 제시된 CFIP 측정모델과 Culnan and Armstrong(1999)에서 사용된 측정항목들을 재구성하여 인터넷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조직적 정책이나 컴퓨터 불안과 같은 관련이 없는 항목은 제외하고,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기 위해 두 가지 하위차원의 오용(abuse)과 발견(finding)으로 구분하고 있다. 오용은 CFIP 측정모델의 부적절한 접근과 비권한적 사용과 관련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발견은 이름, 주소, 신용카드 정보의 노출

과 같은 구체적인 프라이버시 문제를 포함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프라이버시 염려에서 파생된 개념인 인지된 통제능력과 인지된 취약성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후속연구인 Dinev and Hart(2005-6; 2006)에서는 Dinev and Hart(2004)의 측정도구를 수정하여 인터넷 프라이버시 염려(IPC: internet privacy concern)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인터넷 사용자의 전반적인 프라이버시 염려를 단일차원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Dinev and Hart(2005-6)는 온라인 거래에 대한 행동의도에, Dinev and Hart(2006)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개인정보제공의도에 프라이버시 염려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5 OPC

Buchanan et al.(2007)은 인터넷 사용에 있어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태도와 행동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라이버시 태도는 프라이버시 염려로, 프라이버시 행동은 일반적 주의와 기술적 보호로 설정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선행되어진 프라이버시 관련 문헌이나 서베이를 기반으로 총 82개 항목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측정항목을 수집하였으며, 그 중 48개 항목이 프라이버시 염려와 관련된 측정항목으로 나타났다. 이때, 프라이버시 염려는 정보적 프라이버시(informational privacy), 물리적 프라이버시(physical privacy), 표현적 프라이버시(expressive privacy), 접근가능성(address accessibility) 등과 관련된 측정항목이 포함되었다. 주성분분석을 통해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OPC: online privacy concern)는 총 16개 항목으로 구

성된 단일차원으로 개발되었다.

III. 연구방법

3.1 연구수집 및 선정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해 다룬 연구들을 수집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메타분석은 연구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종합적 메타분석과 특정 이론이나 주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분석적 메타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Wallace, 1992).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를 다루는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통합하는 분석적 메타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다루어진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통합연구를 실시하기 위해 국내 문헌을 대상으로 논문을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의 범위를 정보시스템 분야에서 진행된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연구로 국한시키기에는 논문의 수가 많지 않아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즉, 정보시스템 분야의 주요 학술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사회과학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수집하였다.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내 주요 사회과학 데이터베이스인 DBpia(<http://www.dbpia.co.kr>), KISS(<http://kiss.kstudy.com>), KyoboScholar(<http://scholar.dkyobobook.co.kr>), RISS(<http://www.riss.kr>)에서 프라이버시 염려를 키워드로 검색하였고, 그 결과 DBpia 39편, KISS 6편, Kyobo Scholar 255편, RISS 81편으로 총 381편의 논문이 검색되

었다. 먼저, 검색된 논문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여 프라이버시 염려가 포함되지 않은 연구를 제외시켰다. 프라이버시 염려를 다루고 있지 않은 연구 DBpia 12편, Kyobo Scholar 202편, RISS 48편을 제외하고 총 119편의 논문을 1차적으로 선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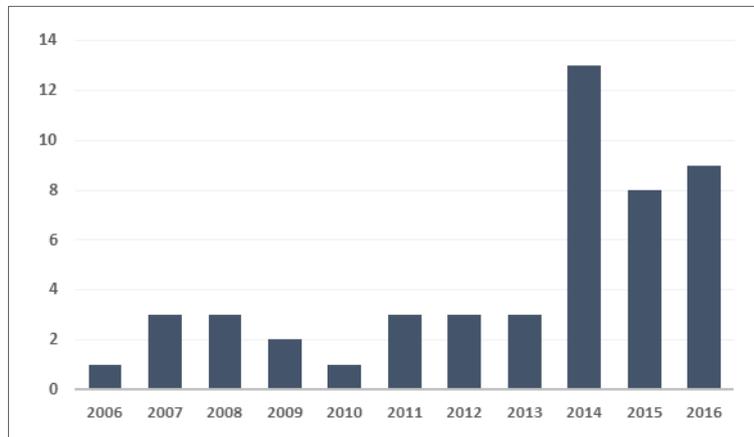
2차적인 선별은 보다 명확한 선정기준을 통해 이루어졌다. (1) 프라이버시 염려 구성개념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한 논문 (2) 온라인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염려를 연구한 논문(오프라인 환경은 제외) (3) 개인을 대상으로 프라이버시 염려를 연구한 논문 (4)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중복된 경우 학술지 게재 논문만 포함하였다. 이러한 선정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 논문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DBpia 24편, KISS 1편, Kyobo Scholar 4편, RISS 20편의 총 49편의 논문을 연구에 포함하였다.

3.2 연구대상의 기술적 특성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논문의 특성을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연구는 2006년부터 진행되어 왔으며, <그림 1>에서 나타났듯이 2014년부터 논문의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이 6편, 학술지에서 게재된 논문이 43편으로 학술지 게재논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중복되는 경우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제외한 결과이다.

셋째, 국내 프라이버시 염려 연구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67.3%로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고, 다음으로 공학이 18.4%, 복합학이 14.3%의 비중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사회과학 중에서는 경영학분야가 46.9%로 수집된 논문 전체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넷째, 연구주제로는 SNS가 18편(36.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포괄적으로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현상에 대한 연구가 9편(18.4%), 전자상거래에 대한 연구가 6편(12.2%)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그림 1> 수집된 논문의 발간연도

정보기술이 다양해지면서 위치기반서비스, 사물인터넷 등 연구주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

〈표 2〉 수집된 논문의 연구분야

연구분야	논문편수	비율	
사회과학	경영학	23	46.9%
	신문방송학	7	14.3%
	교육학	1	2.0%
	사회과학일반	2	4.1%
공학	컴퓨터학	8	16.3%
	산업공학	1	2.0%
복합학	학제간연구	4	8.2%
	과학기술학	3	6.1%
합계	49	100.0%	

4.2 연구분야

그동안 프라이버시 염려는 전자상거래 분야(민병권, 김이태, 2006; 최혁라, 신정신, 2007; 유일 외, 2008; 김종기, 김상희, 2014; 김진성, 김종기, 2015)와 SNS 분야(정철호, 남수현, 2011; 박선화, 김광용, 2012; 기소진, 이수영, 2013; 이환수 외, 2013; 박남수 외, 2014; 박현선, 김상현, 2014; 안수미 외, 2014; 이미나 외, 2014; 이성준, 2014; 장성호, 이기동, 2014; 신동희, 김용문, 2015; 이주영, 강현정, 2015)에서 사용자의 태도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어 왔으며, 포괄적으로 웹사이트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 다루는 프라이버시 행동연구(이미나, 심재웅, 2009; 김준우 외, 2014; 박천웅, 김준우, 2015; 박천웅 외, 2016)에서도 사용되어 왔다. 스마트폰이 발달함에 따라 모바일쇼핑이나 위치기반서비스를 대상으로 프라이버시 염려가 측정되고 있으며(김혜영 외, 2011; 김상현, 박현선, 2012; 신미향, 2014; 이동만, 장성희, 2014; 장성희, 2014; 박철 외, 2015), 최근에는 소셜미디어, IoT서비스나 스마트워치, 핀테크 등 새로운 정보기술에 대하여 프라이버시 염려가 측정되고 있다(강문영 외, 2016; 김민경, 최보름, 2016; 김준우 외, 2016; 박천웅, 김준우, 2016; 염준호, 김선경, 2016; 이애리, 안효영, 2016).

IV. 분석결과

4.1 정의

프라이버시 염려는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연구되어온 만큼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국내연구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염려는 주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이재신, 연보영, 2008; 이미나, 심재웅, 2009; 정철호, 남수현, 2011; 박선화, 김광용, 2012; 기소진, 이수영, 2013; 박현선, 김상현, 2014; 이동만, 장성희, 2014; 이미나 외, 2014; 강문영 외, 2016), 정보노출의 결과로 나타나는 프라이버시 상실 가능성에 대한 염려(최혁라, 신정신, 2007; 유일 외, 2008; 이환수 외, 2013; 장성호, 이기동, 2014; 장성희, 2014),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염려(이성준, 2014)

4.3 차원

프라이버시 염려 구성개념은 단일차원과 다차원 관점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대부분 연구에서는 단일차원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염려가 측정되고 있으

며, 이들은 대체로 Dinev and Hart(2004, 2006), Buchanan et al.(2007)의 측정모델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Phelps et al.(2001), Zhou(2011) 등 여러 측정모델을 참고하여 프라이버시 염려가 다양한 형태로 측정되고 있으며, 이는 <부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차원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염려 구성개념을 다룬 연구는 주로 Smith et al.(1996)의 CFIP 모델과 Malhotra et al.(2004)의 IUIPC 모델을 통해 측정하고 있다. 이들이 제시한 측정모델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혹은 일부를 수정 및 삭제하여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고 있다. 또한 다차원적 관점에서 제시된 구성개념을 여러 요인으로 구분하여 측정하기도 하며(곽수한 외, 2010; 이기호 외, 2014; 김용희 외, 2015; 이애리, 안효영, 2016), 2차 요인으로 반영 또는 형성되는 하나의 요인으로 측정하기도 하였다(임병하, 강동원, 2014; 장성희, 2014; 엄명용 외, 2015). 또한 CFIP 모델이 단일차원으로 측정된 연구도 존재한다(백진현, 2008; 장초 외, 2012).

4.4 역할

프라이버시 염려 구성개념은 사용자의 태도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한 선행요인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태도 및 거래의도를 설명하기 위해(민병권, 김이태, 2006; 최혁라, 신정신, 2007; 유일 외, 2008; 김종기, 김상희, 2014), SNS 분야에서는 자기노출 및 정보공개수준을 설명하기 위해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 및 보호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정철호, 남수현, 2011; 박선화, 김광용, 2012; 이환수 외, 2013; 박현선, 김상현, 2014; 안수미 외, 2014; 이성준, 2014; 장성호, 이기동, 2014;

김상현, 박현선, 2015; 신동희, 김용문, 2015; 김연중, 안병혁, 2016). 이외에도 위치기반서비스나 사물인터넷의 사용의도를 설명하기 위해(김상현, 박현선, 2012; 이동만, 장성희, 2014; 장성희, 2014; 김민경, 최보름, 2016; 박천웅, 김준우, 2016), 웹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의도나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왔다(이미나, 심재웅, 2009; 전윤나 외, 2009; 장초 외, 2012; 김준우 외, 2014; 박천웅, 김준우, 2015; 엄명용 외, 2015; 박천웅 외, 2016). 연구분야에 따라 종속변수에는 차이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사용자의 태도와 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염려 구성개념은 다양한 형태의 사용자 태도나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독립변수로써 사용되기도 하며,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적 특성 등을 나타내는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매개하는 역할로도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프라이버시 염려 구성개념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로도 사용되기도 하였다. 김용희 외(2015)의 연구에서는 IoT 서비스 수용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정교화가능성모델(ELM: 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을 UTAUT의 변수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이때, CFIP 측정모델로 구성된 프라이버시 염려의 수준에 따라 독립변수와 인지된 유용성 간의 관계에 미치는 조절적 영향을 설명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V. 프라이버시 염려의 측정모델

본 연구에서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통합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된 연구 총 49편 중에서 프라이버시 염려 구성개념은 대부분 단일차원 관점에서 측정되고 있으며, 다차원 관점에서 측정된 논문은 9편에 불과하다. 다차원 관점의 프라이버시 염려는 CFIP 모델과 IUIPC 모델에 의해 측정되고 있으며, 프라이버시 인덱스 모델을 통해 측정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1 CFIP 측정모델

프라이버시 염려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CFIP 모델을 활용한 연구는 총 6편으로 나타났다. 백진현(2008)은 제품유형에 따라 온라인 쇼핑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라이버시 염려는 온라인 쇼핑 수용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CFIP 측정모델을 활용하였다. CFIP 측정모델의 15항목을 하나의 요인으로 적재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구매비용이 낮으면서 구매빈도가 높은 유형적 제품(도서), 구매비용이 높으면서 구매빈도가 낮은 유형적 제품(TV 용 게임), 구매비용이 높으면서 구매빈도가 낮은 무형적 제품(컴퓨터 게임)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온라인 쇼핑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매비용이 낮으면서 구매빈도가 높은 무형적 제품(온라인 뉴스 및 잡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초 외(2012)는 인터넷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가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을 분류한 여러 선행연구(Singh, 1990; Son and Kim, 2008; Cho et al., 2009; Park, 2011)를 바탕으로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을 여섯 가지 요인

으로 구분하고, 이를 두 가지 유형으로 그룹화 하였다. 적극적(active) 행동은 거부(refusal), 허위제공(misrepresentation), 삭제(removal), 소극적(passive) 행동은 구전(word-of Mouth), 불평(complaint), 탐색(seeking)으로 구분하였다. 이때, 프라이버시 염려는 CFIP 모델을 기반으로 네 가지 차원인 수집, 오류, 비권한의 이차적 사용, 부적절한 접근으로 구분하였지만 10문항으로 수정한 후 하나의 요인으로 적재하여 측정이 이루어졌다. 한국 사용자와 중국 사용자를 비교한 결과, 한국 사용자는 프라이버시 염려가 적극적 행동(거부)과 소극적 행동(불평,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중국 사용자는 적극적 행동(거부, 허위제공)과 소극적 행동(불평,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기호 외(2014)는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기 위해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CFIP 측정모델(수집, 비권한의 이차적 사용, 오류, 부적절한 접근)의 15항목을 의료정보에 대한 항목으로 수정한 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프라이버시 염려 측정모델로 다시 전개하였다. 그 결과, 네 가지 차원의 CFIP 측정모델이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권한의 이차적 사용과 부적절한 접근이 하나의 요인으로 적재되었으며, 수집과 오류는 각각의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이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모형 적합도를 평가하였으며, 요인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을 분석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한 측정모델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장성희(2014)는 위치기반서비스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Liu et al.(2005)의 '프라이버시 염려-신뢰-행동의도' 모형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때, 프라이버시 염려는 CFIP

측정모델의 네 가지 요인을 2차 요인으로 적재하여 측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위험인지는 프라이버시 염려에 긍정적인 영향을, 프라이버시 염려는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신뢰는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용희 외(2015)는 정교화모델을 적용하여 IoT 서비스 사용의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UTAUT(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의 변수를 이용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프라이버시 염려는 IoT 사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심경로(노력기대, 논지의 품질) 및 주변경로(촉진조건, 사회적 영향)와 지각된 유용성 간의 관계에서 조절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때, 프라이버시 염려 구성개념은 CFIP 모델을 기반으로 다차원적 관점에서 구성되었으며 이를 2차 요인으로 적재하여 측정이 이루어졌다. 프라이버시 염려와 사용의도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노력기대와 인지된 유용성 간의 관계에서만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리, 안효영(2016)은 핀테크 사용에 있어 사용자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를 연구하였다. 사회적 영향과 모바일 인터넷 활용능력은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에 영향을 미치고, 최종적으로 사용자 저항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프라이버시 염려 측정항목이 CFIP 측정모델에서 제시한 것처럼 네 가지 요인으로 구분되는지 요인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CFIP 측정모델의 총 14개의 문항이 수집과 관련된 4개의 문항과 나머지 10개의 문항으로 분리되었다. 따라서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를 수집과 유지관리로 구분하여 다차원적 개

념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적 영향은 유지 관리에, 모바일 인터넷 활용능력은 수집과 유지 관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와 사용자 저항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5.2 IUIPC 측정모델

프라이버시 염려 구성개념을 측정하기 위해 IUIPC 모델을 적용한 연구는 총 3편으로 나타났다. 박수환 외(2010)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염려가 자아불일치와 최종적으로 커뮤니티의 공동체 의식(소속감, 몰입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때, 프라이버시 염려는 IUIPC 측정모델을 기반으로 수집, 통제, 인식으로 구분하여 다차원적 관점에서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수집과 통제는 자아불일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식만이 자아불일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 염려가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분석해본 결과, 통제만 몰입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임병하, 강동원(2014)은 폐쇄형 SNS(네이버 밴드)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대한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가 지속적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다른 독립변수(인지된 보안, 인지된 심리적 프라이버시, 신뢰, 만족, 혜택)와 지속적 사용의도 간의 관계에 대한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때,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IUIPC 측정모델을 2차 요인으로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프라이버시 염려는 지속적 사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효과 분석에서는 인지된 심리적 프

라이버시, 신뢰, 혜택과 지속적 사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프라이버시 염려가 조절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엄명용 외(2015)는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보호활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인지된 유용성, 자기효능감, 그리고 정보보호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프라이버시 염려는 IUIPC 모델을 2차 요인으로 적재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는 인지된 유용성과 자기효능감, 그리고 정보보호활동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각 경로에 대하여 남녀 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자기효능감과 정보보호활동 간의 관계에서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종합해보면, 프라이버시 염려를 다차원 관점에서 측정하는 대표적인 측정모델인 CFIP 측정모델과 IUIPC 측정모델은 다양한 형태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CFIP 측정모델은 단일차원 관점과 다차원 관점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FIP 측정모델에서 제시한 네 가지 차원을 각각 구분되는 요인으로 보고 측정한 연구(이기호 외, 2014; 김용희 외, 2015; 이애리, 안효영, 2016)와 이를 2차 요인으로 적재하여 다차원 관점이지만 하나의 고차원

요인으로 측정된 연구(장성희, 2014)가 존재한다. 또한 CFIP 측정모델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특징을 간과하고 네 가지 차원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어 단일차원 관점에서 측정된 연구(백진현, 2008; 장초 외, 2012)도 존재한다.

IUIPC 측정모델을 적용하여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된 연구를 살펴보면, 모두 다차원적 관점에서 측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IUIPC 측정모델이 제시한 세 가지 차원인 수집, 통제, 인지를 각각 다른 구성개념으로 보고 측정된 연구(곽수환 외, 2010)와 이를 2차 요인으로 적재하여 측정된 연구(임병하, 강동원, 2014; 엄명용 외, 2015)가 존재한다. <표 3>에서는 CFIP 측정모델과 IUIPC 측정모델이 사용된 연구들이 제시되어 있다.

VI. 프라이버시 염려와 다른 요인과의 관계

6.1 프라이버시 염려의 선행요인

본 연구에서 수집된 논문들을 프라이버시 염려를 중심으로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을 정리한 결과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프라이버시 염려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은 크게 개인적 특성, 상대

<표 3> 다차원 관점의 프라이버시 염려 측정모델

측정모델	단일차원	다차원	
		1차 요인	2차 요인
CFIP	백진현(2008) 장초 외(2012)	이기호 외(2014) 김용희 외(2015) 이애리, 안효영(2016)	장성희(2014)
IUIPC	-	곽수환 외(2010)	임병하, 강동원(2014) 엄명용 외(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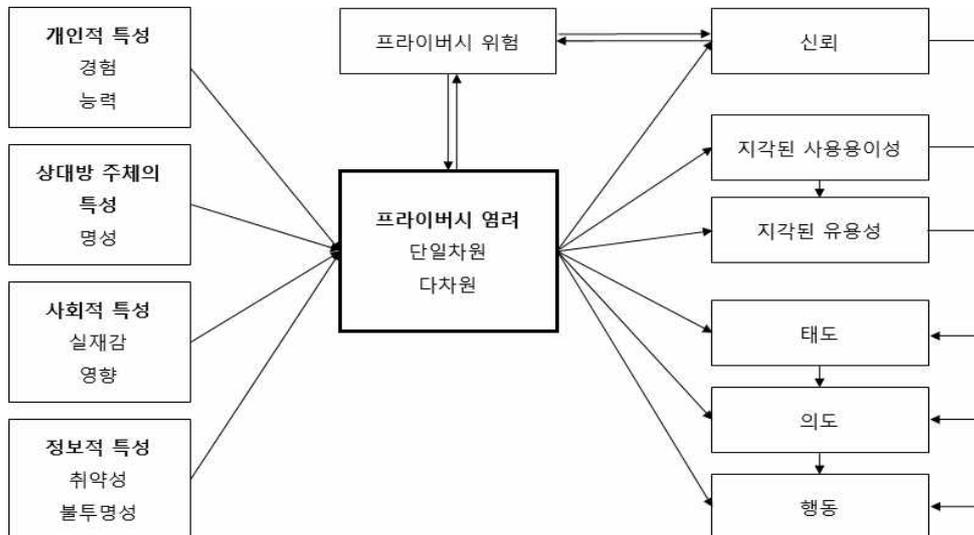
방 주체의 특성, 사회적 특성, 정보적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적 특성은 대체로 경험이나 능력으로 나타난다. 경험은 부정적인 경험인 프라이버시 침해경험(김준우 외, 2014; 이동만, 장성희, 2014; 김연중, 안병혁, 2016; 박천웅, 김준우, 2016)과 정보기술에 대한 경험인 ICT 경험(윤일한, 권순동, 2016) 등이 사용되었으며, 능력은 인터넷 활용능력(최혁라, 신정신, 2007; 유일 외, 2008)과 모바일 활용능력(김상현, 박현선, 2012; 이애리, 안효영, 2016), 정보통제능력(유일 외, 2008; 김상현, 박현선, 2012) 등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방 주체에 대한 특성은 연구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위치기반서비스 특성으로 개인화(김상현, 박상현, 2012), 위치인식(김상현, 박상현, 2012; 장성희, 2014)이 사용되었으며, SNS 이용 특성으로 표현욕구, 마케팅 정보(김연중, 안병혁, 2016) 구성개념이 사용되었다. 이외에도 상대방 주체의 명성(김상현, 박상현, 2012)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특성으로는 사회적 영향(이애리, 안효영, 2016), 사회적 실재감(김상현, 박현선, 2012; 김연중, 안병혁, 2016), 사회적 인지(유일 외, 2008), 프라이버시 정책(박천웅, 김준우, 2016; 박천웅 외, 2016), 사이버 검열(신동희, 김용문, 2015) 등이 사용되었으며, 정보적 특성으로는 정보자체의 특성인 간결성 및 최신성(김연중, 안병혁, 2016), 취약성(최혁라, 신정신, 2007; 유일 외, 2008; 박선화, 김광용, 2012), 정보과부하(이환수 외, 2013), 정보 불투명성(김진성, 김종기, 2015) 등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 염려의 선행요인으로 프라이버시 위험이 중요한 변수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환수 외, 2013; 김준우 외, 2014; 이동만, 장성희, 2014; 장성호, 이기동, 2014; 신동희, 김용문, 2015; 박천웅, 김준우, 2016; 박천웅 외, 2016). 반대로 프라이버시 위험이 프라이버시 염려의 선행



〈그림 2〉 통합적 프레임워크

요인으로 설정된 연구도 존재한다(김종기, 김상희, 2014).

6.2 프라이버시 염려의 결과요인

프라이버시 염려의 결과요인으로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프라이버시 위협과 신뢰, 지각된 유용성/사용용이성, 태도/의도/행동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에서 사용자의 특정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신뢰와 위협 개념이 적용되어 왔다.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프라이버시 염려를 신뢰와 위협 개념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국내 연구들을 살펴보면, 프라이버시 염려는 신뢰 구성개념의 선행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연구들은 Liu et al.(2005)의 '프라이버시 염려-신뢰-행위의도' 모형을 토대로 연구모형이 설정되고 있다.

최근 프라이버시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의 관계는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된다. 첫 번째 관점은 프라이버시 염려를 신뢰의 선행요인으로 보는 관점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염려가 높을수록 개인정보를 제공한 주체에 대한 신뢰가 낮아진다는 관점이고, 두 번째 관점은 신뢰를 프라이버시 염려의 선행요인으로 보는 관점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주체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염려가 낮아진다는 관점이다. 세 번째 관점은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를 독립적인 요인으로 보는 관점으로 프라이버시 염려는 지극히 개인의 특성이고 신뢰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주체에 대한 특성이기 때문에 두 요인 간에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관점이다. 국외 연구에서

는 다양한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를 다루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수집한 국내 연구들은 모두 프라이버시 염려를 신뢰의 선행요인으로 보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최혁라, 신정신, 2007; 유일 외, 2008; 김상현, 박현선, 2012; 박선화, 김광용, 2012; 장성희, 2014; 김진성, 김종기, 2015; 박천웅, 김준우, 2015; 이주영, 강현정, 2015, 박천웅 외, 2016).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프라이버시 염려는 프라이버시 위협과는 구분되는 개념으로 다루어지며, 이들 간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Li(2011)의 연구에서는 위협 신념이 주로 프라이버시 염려의 결과요인으로 쓰여 나타나지만 선행요인으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염려와 위협의 선후관계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국내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프라이버시 위협이 프라이버시 염려의 선행요인으로 설정되어 다루어져 왔으며(이환수 외, 2013; 김준우 외, 2014; 이동만, 장성희, 2014; 장성호, 이기동, 2014; 신동희, 김용문, 2015; 박천웅, 김준우, 2016; 박천웅 외, 2016), 프라이버시 염려가 프라이버시 위협의 선행요인으로 설정된 논문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김종기, 김상희, 2014). 프라이버시 위협이 프라이버시 염려의 선행요인으로 설정된 연구를 살펴보면, 프라이버시 염려는 공통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나 상실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정의되고 있다.

다음으로, 프라이버시 염려와 사용자 행동 사이에서 TAM(technical acceptance model)의 주요 요인인 지각된 유용성(정철호, 남수현, 2011; 신미향, 2014; 엄명용 외, 2015; 강문영 외, 2016)과 사용용이성(신미향, 2014; 강문영 외, 2016)이 매개 역할을 한다고 설정된 연구도 존재한다. 이외에도 만족(정철호, 남수현, 2011; 박철 외, 2015), 지각

된 즐거움(정철호, 남수현, 2011), 자기효능감(나은영, 2013; 엄명용 외, 2015) 등 다양한 요인이 프라이버시 염려의 결과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구모형의 종속변수는 사용자 행동과 관련된 요인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체로 TRA(theory of reasoned action)를 근거로 '태도-의도-행동' 중 하나의 요인으로 사용자 행동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연구대상에 따르면, 태도는 온라인 쇼핑에 대한 태도(백진현, 2008), 자기노출에 대한 태도(이재신, 연보영, 2008; 이성준 외, 2011),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안수미 외, 2014), 광고태도(이성준, 2014) 등이 사용되었고 의도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거래의도(유일 외, 2008), 위치기반서비스 사용의도(김상현, 박현선, 2012), 개인정보제공의도(김종기, 김상희, 2014; 박천웅, 김준우, 2015; 박천웅, 김준우, 2016; 박천웅 외, 2016), SNS중단의도(박현선, 김상현, 2014), SNS 지속사용의도(임병하, 강동원, 2014; 이주영, 강현정, 2015), IoT사용의도(김용희 외, 2015; 김민경, 최보름, 2016), 스마트워치 구매의도(김준우 외, 2016) 등이 사용되었다. 행동은 프라이버시 대응행동(전윤나 외, 2009), 프라이버시 보호행동(장초 외, 2012; 이동만, 장성희, 2014; 장성호, 이기동, 2014), 정보제공행동(김종기, 김상희, 2014; 김연중, 안병혁, 2016), SNS사용행동(신동희, 김용문, 2015) 등이 사용되었다. 이처럼 사용자 행동을 측정하는 요인은 연구분야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이외에도 프로필 공개수준, 게시물 공개수준(박남수 외, 2014), 개인정보공개 정도/범위(이미나 외, 2014), SNS 피로감(박현선, 김상현, 2014), 프라이버시 무관심(김연중, 안병혁, 2016), 잊혀질 권리(윤일한, 권순동, 2016) 등 프라이버시 염려의 결과요인은 연구 주제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Ⅶ. 결론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으로 다루어지는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하여 국내 문헌을 대상으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라이버시 염려를 중심으로 다양한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량적인 측면에서 통합연구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정성적인 측면에서 통합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프라이버시 연구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논문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프라이버시 염려 구성개념이 포함된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수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최종적으로 포함된 연구대상을 통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프라이버시 염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을 크게 개인적 특성, 상대방 주체의 특성, 사회적 특성, 정보적 특성으로 구분하였다. 국외문헌에서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메타분석을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Smith et al. (2011)은 프라이버시 염려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프라이버시 경험, 프라이버시 인식, 개인적 차이, 인구통계학적 차이, 문화/풍토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Li(2011)는 프라이버시 염려를 일반적 CFIP와 특정 CFIP로 구분하고, 개인적 요인(인구통계학적 요인, 개인적 특성, 지식 및 경험, 컴퓨터 불안, 컴퓨터 자기효능감, 프라이버시 필요성), 사회-관계적 요인(사회적 요인), 조직적 및 임무 환경적 요인(평판, 프라이버시 개입, 사회적 실재감), 거시-환경적 요인(문화, 정부규제), 정보적 요인(정보 유형, 정보 민감성)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처럼 국외문헌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의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국내문헌에서는 그만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는 국외문헌에 비해 국내 프라이버시 연구는 아직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본 연구와 같은 국내 문헌에 대한 통합연구를 시도함으로써 프라이버시 연구에 대한 이해와 연구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최근 들어 국외문헌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와 신뢰 간의 관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문헌에서는 아직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국외문헌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를 신뢰의 선행요인으로 보는 관점(Malhotra et al., 2004; Chellappa, 2008; Bansal et al. 2010; Wu et al., 2012), 신뢰를 프라이버시 염려의 선행요인으로 보는 관점(Belanger et al., 2002; Pavlou et al., 2007; Taylor et al., 2009), 신뢰와 프라이버시 염려를 독립적으로 보는 관점(Dinev and Hart, 2006; Anderson and Agarwal, 2011; Liao et al., 2011)의 세 가지 관점에서 연구가 접근되고 있지만, 국내문헌에서는 Liu et al.(2005)의 '프라이버시 염려-신뢰-행위도' 모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프라이버시 염려를 신뢰의 선행요인으로 보는 관점에서 대부분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프라이버시 염려와 위험 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내문헌에서는 대부분 프라이버시 위험이 프라이버시 염려의 선행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Li(2011)와 Smith et al.(2011)의 연구에 따르면, 국외문헌에서는 대부분 프라이버시 위험이 프라이버시 염려의 결과요인으로써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 위험이 프라이버시 염려의 선행요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도 있어 두 구성개념의 관계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지만(Li, 2011),

본 연구에서 수집된 국내문헌들을 통합해본 결과 국내문헌에서는 국외문헌과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문헌에서 프라이버시 염려 구성개념이 어떻게 측정되었는지 측정모델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였다. 프라이버시 염려 구성개념은 대부분 단일차원으로 측정되어 왔으며, 대표적으로 Buchanan et al.(2007)과 Dinev and Hart (2004; 2005-6; 2006)의 측정모델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어떠한 측정모델을 토대로 측정항목을 구성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않는 연구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라이버시 염려를 다차원적 관점에서 측정하는 모델인 CFIP나 IUIPC가 단일차원으로 측정되는 등 측정모델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프라이버시 염려를 다차원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초기 모델인 CFIP 측정모델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FIP 측정모델은 다차원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개발된 측정모델이지만 단일차원 요인으로 측정되는 등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연구도 존재한다. 국내문헌에서 CFIP 측정모델이 초기에 적용될 때에는 주로 단일차원으로 측정되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래의 목적대로 다차원으로 인식하여 측정되고 있다.

IUIPC 측정모델도 다차원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고자 개발되었으며, 세 가지 차원을 하나의 2차 요인으로 측정한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논문들을 종합해보면, IUIPC 측정모델은 모두 다차원 관점에서 측정되었다. 초기에는 각각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연구가 수행되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본래의 특징에 부합하도록 2차 요인으로 측정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최근 인과관계 연구에서 고차원 요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프라이버시 염려의 측정모델에 대해 시간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고 싶었으나 뚜렷한 추세를 찾아보기는 힘들다. 프라이버시 염려를 단일차원으로 측정하는 경우 여러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다양한 형태로 측정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차원 관점에서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초기에는 측정모델이 개발된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본래의 목적대로 측정되고 있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프라이버시 염려의 측정모델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프라이버시 염려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수 있다. 먼저, 프라이버시 염려 구성개념을 단일차원으로 측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IPC, OPC 측정모델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측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에 있어 전반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를 하나의 구성개념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측정하고자 할 때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의 의도에 적합한 형태로 수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 염려를 보다 구체적으로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차원 측정모델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국내 문헌 뿐만 아니라 국외문헌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사용된 다차원 측정모델은 CFIP 모델이다. 이는 오프라인 환경에서 조직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기 위해 생겨난 측정모델로서 온라인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으며, IUIPC 모델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온라인 환경에서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기 위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IUIPC 모델은 2차 요인으로 측정하도록 구성된 모델이기 때문에 의미상 다차원 개념이기는 하지만 단일차원 구성개념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환경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정보 프라이버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연구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꽤 성장해 있는 상태이며,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이들을 통합하는 연구 즉, 메타분석을 실시한 연구도 몇몇 존재한다(Li, 2011; Smith et al., 2011; Li, 2012). 그러나 국내 프라이버시 연구는 국외 연구에 비해 비교적 소수에 불과하며, 최근 들어서는 양적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질적인 수준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문헌을 통합하여 그동안 국내 프라이버시 연구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파악해보는 것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향후 프라이버시 연구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어 국내 프라이버시 연구가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동안 소수의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프라이버시 염려의 측정모델이 이후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적용되어 왔으나 각 측정모델의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이해없이 무분별하게 적용된 경우도 상당수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염려의 측정모델을 기준으로 통합연구를 실시함으로써 각 측정모델의 특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 향후 프라이버시 연구에서 프라이버시 염려를 측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문헌을 대상으로 통합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국내 학술지와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검색하여 연구대상을 수집하였다. 사회과학 분야의 주요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라이

버시 염려'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실시하였는데, 프라이버시 염려 구성개념이 포함된 모든 논문이 검색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프라이버시 염려와 관련된 키워드를 추가하여 더 많은 논문을 검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 프라이버시 문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프라이버시 염려를 중심으로 정성적 통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통합연구는 일반적으로 정성적 통합연구와 정량적 통합연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정량적 통합연구를 통해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함으로써 문헌적 고찰과 같은 정성적 통합연구가 가지는 주관성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정량적 통합연구는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한 강도를 분석함으로써 객관적인 결론을 도출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 간의 관계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보다는 프라이버시 염려를 중심으로 어떠한 선행요인과 결과요인이 연구되어 왔는지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정량적 통합연구를 제외하고 정성적 통합연구만을 수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량적 통합연구를 통해 보다 객관성이 보장된 메타분석이 진행된다면 프라이버시 연구가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이다.

셋째, 본 연구는 국내 프라이버시 문헌만을 대상으로 통합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외에서 다루어진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메타분석을 살펴보면, 프라이버시 염려의 선행요인이나 결과요인에 대하여 통합한 연구는 존재하지만 측정모형을 중심으로 통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을 국외문헌으로 확장하여 통합연구를 진행한다면 국외문헌을 기준으로 국내문헌을 비교할 수 있어 한층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이다.

참고문헌

- 강문영 · 지영수 · 강학래(2016), "소셜 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네이티브 광고의 사용 의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광고학연구**, 27(2), 7-28.
- 곽수환 · 류성열 · 이윤희(2010), "커뮤니티 서비스에서 프라이버시 염려, 자아불일치 및 공동체 의식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0(8), 360-369.
- 기소진 · 이수영(2013), "프라이버시 염려와 자기효능감에 따른 SNS 이용자 유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언론학보**, 57(1), 81-110.
- 김민경 · 최보름(2016), "사물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보호옵션에 따른 지각된 개인화와 프라이버시 염려: 헬스밴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320-325.
- 김상현 · 박현선(2012), "위치기반서비스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프라이버시 염려감소 선행요인, 신뢰 그리고 개인혁신성의 조절효과," **정보시스템연구**, 21(2), 73-96.
- 김상현 · 박현선(2015), "SNS에서의 사용자 피로감의 선행 및 결과 요인과 습관의 조절효과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14(4), 137-157.
- 김연중 · 안병혁(2016), "프라이버시 패러독스 현상이 SNS 사용자의 개인정보 제공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 학술대회논문집**, 253-262.
- 김용희 · 최병무 · 최정일(2015), "IoT 서비스의 성공적 수용에 관한 연구: iBeacon과 Nearby를 중심으로," **한국IT서비스학회지**, 14(1), 217-236.
- 김종기 · 김상희(2014), "프라이버시 염려와 정보제공행동 간의 프라이버시 역설에 관한 연구: 프라이버시 계산 이론을 중심으로," **Entrue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13(3), 139-152.
- 김준우 · 박천용 · 장성호 · 박수현(2014), "정보 프라이버시 위험과 침해 경험이 개인정보 제공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정보학회 추계 학술대회논문집**,

- 315-324.
- 김준우 · 박수현 · 이진희 · 광현호(2016), "스마트 워치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개인 혁신성의 조절효과,"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81-88.
- 김진성 · 김종기(2015),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와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반응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8(8), 1959-1984.
- 김혜영 · 장예빛 · 박현아 · 유승호(2011), "스마트폰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 염려에 관한 연구," **한국HCI학회 학술대회논문집**, 1150-1152.
- 나은영(2013), "트위터 이용자의 온라인 자기노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한국언론학보**, 57(4), 124-148.
- 민병권 · 김이태(2006), "온라인 쇼핑에서 프라이버시 염려의 원인변수와 결과변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6(11), 25-37.
- 박남수 · 이현주 · 천혜선(2014), "페이스북 정보공개 범위 수준과 프라이버시 보호전략,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연구**, 88, 78-114.
- 박선화 · 김광용(2012),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지속사용의도 및 관계채널확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11(2), 319-337.
- 박천웅 · 김준우(2015), "융복합 시대의 정보 프라이버시와 신뢰 모델에 대한 실증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3(4), 219-225.
- 박천웅 · 김준우(2016), "사물인터넷 시대의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실증연구,"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4(2), 65-72.
- 박천웅 · 김준우 · 권혁준(2016),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 프라이버시 위협과 정책에 관한 실증 연구," **한국전자거래학회지**, 21(1), 131-145.
- 박철 · 전종근 · 이태민(2015), "모바일 쇼핑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고객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 중국, 미국, 일본 4개국 비교," **국제경영연구**, 26(2), 99-128.
- 박현선 · 김상현(2014), "SNS 피로감 요인이 SNS 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서비스 몰입의 조절효과," **경영경제**, 47(2), 1-24.
- 백진현(2008), "제품유형에 따른 고객의 온라인 쇼핑물 사용 정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경영정보연구**, 26, 153-180.
- 신동희 · 김용문(2015), "국내 사이버 검열이 SNS 이용자들의 사용 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32(3), 171-215.
- 신미향(2014), "스마트폰 기반 쇼핑몰에 대한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적 혁신성이 유용성과 사용편의성 및 만족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2(8), 197-208.
- 안수미 · 장재영 · 김지동 · 김범수(2014), "SNS에서 프라이버시 침해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nformation Systems Review**, 16(2), 1-23.
- 엄명용 · 이문기 · 김태웅(2015), "인터넷 사용자의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와 정보보호 활동에 대한 실증연구," **한국컴퓨터교육학회논문지**, 18(1), 69-79.
- 염준호 · 김선경(2016), "정부웹3.0서비스의 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9(1), 139-163.
- 유일 · 신정신 · 이경근 · 최혁라(2008), "프라이버시 염려 영향요인이 인터넷 이용자의 신뢰와 온라인 거래의도에 미치는 영향,"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15(4), 37-59.
- 윤일한 · 권순동(2016), "라이프로그 이용이 기술 만족도와 잊혀질 권리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6(3), 837-852.
- 이기호 · 정영철 · 한경석 · 송태민(2014), "개인의료정보 프라이버시 염려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도 검증," **정보처리학회논문지/컴퓨터 및 통신시스템**, 3(6), 197-208.
- 이동만 · 장성희(2014), "위치기반서비스에서 프라이버시 염려와 보호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혁신성의 조절효과 검증,"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14(4), 1-22.
- 이미나 · 심재웅(2009), "성별에 따른 온라인 프라이버시 염려와 프라이버시 보호전략 사용의 차이에 관한 연구," **미디어,젠더&문화**, 12, 165-191.

- 이미나·이승아·최인혜(2014), "페이스북 이용자의 개인 정보 공개와 결정 요인,"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15(2), 73-85.
- 이성준(2014), "SNS 광고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 관여도의 역할에 대한 고찰 - 페이스북 뉴스피드 광고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9), 188-202.
- 이성준·김용원·이봉규(2011), "마이크로 블로그 사용자의 자기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12(5), 127-136.
- 이애리·안효영(2016), "핀테크 사용에 대한 정보프라이버시 염려와 이용자 저항에 대한 연구,"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6(1), 209-226.
- 이재신·조희창(2007), "사회수준과 개인수준의 온라인 위협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1(6), 457-491.
- 이재신·연보영(2008), "미니홈피에서 나타나는 대학생들의 자기노출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52(3), 98-121.
- 이주영·강현정(2015), "프라이버시 염려가 SNS 지속사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 신뢰도의 매개 및 지각된 유용성의 조절효과," **지식경영연구**, 16(4), 47-67.
- 이준기·최희재·최선아(2007), "서비스의 유용성과 프라이버시 염려도가 개인화 된 서비스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전자거래학회지**, 12(4), 37-51.
- 이환수·임동원·조항정(2013),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과잉이 사용자 저항에 미치는 영향," **지능정보연구**, 19(1), 125-139.
- 임병하·강동원(2014), "폐쇄형 SNS에서 프라이버시가 지속적인 사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밴드 사용자를 중심으로," **Information Systems Review**, 16(3), 191-214.
- 장성호·이기동(2014),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프라이버시 위협이 사용자저항에 미치는 영향," **e-비즈니스연구**, 15(3), 323-338.
- 장성희(2014), "위치기반서비스에서 구매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19(10), 175-184.
- 장초·만리리·민대환·임성택(2012), "인터넷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행동의 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지**, 11(1), 93-107.
- 전윤나·김범수·조한준(2009), "정보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정보주체의 대응 행동 결정요인,"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 학술대회논문집**, 457-463.
- 정철호·남수현(2011), "SNS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도와 수용후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경영정보연구**, 30(3), 85-105.
- 최력라·신정신(2007), "온라인 거래에서 프라이버시 염려의 선행요인과 프라이버시 염려, 신뢰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16(3), 21-44.
- Anderson, C. L., and R. Agarwal(2011), "The Digitization of Healthcare: Boundary Risks, Emotion, and Consumer Willingness to Disclose Personal Health Information,"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2(3), 469-490.
- Bansal, G., F. Zahedi, and D. Gefen(2010), "The Impact of Personal Dispositions on Information Sensitivity, Privacy Concern and Trust in Disclosing Health Information Online," *Decision Support Systems*, 49(2), 138-150.
- Belanger, F., J. S. Hiller, and W. J. Smith(2002), "Trustworthiness in Electronic Commerce: The Role of Privacy, Security, and Site Attributes," *Journal of Strategic Information Systems*, 11(3-4), 245-270.
- Buchanan, T., C. Paine, A. N. Joinson, and U. Reips(2007), "Development of Measures of Online Privacy Concern and Protection for Use on the Internet,"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58(2), 157-165.
- Chellappa, R. K.(2008), "Consumers' Trust in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s: The Role of Perceived Privacy and Perceived Security,"

- Working paper, Emory University, Atlanta, GA.
- Cho, H., M. Rivera-Sánchez, and S. S. Lim(2009), "A Multinational Study on Online Privacy: Global Concerns and Local Responses," *New Media Society*, 11, 395-416.
- Culnan, M. J., and P. K. Armstrong(1999),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Procedural Fairness, and Impersonal Trust: An Empirical Investigation," *Organization Science*, 10, 104-115.
- Dinev, T., and P. Hart(2004), "Internet Privacy Concerns and Their Antecedents—Measurement Validity and a Regression Model," *Behavior and Information Technology*, 23(6), 413-422.
- Dinev, T., and P. Hart(2005-6), "Internet Privacy Concerns and Social Awareness as Determinants of Intention to Transact," *International Journal of Electronic Commerce*, 10(2), 7-29.
- Dinev, T., and P. Hart(2006), "An Extended Privacy Calculus Model for E-Commerce Transaction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7(1), 61-80.
- Harris Interactive(2003), Most People Are 'Privacy Pragmatists' Who, While Concerned about Privacy, Will Sometimes Trade It Off for Other Benefits.
- Korzaan, M. L., and K. T. Boswell(2008),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Traits and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on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Computer Information Systems*, 48(4), 15-24.
- Kumar, N., K. Mohan, and R. Holowczak(2008), "Locking the Door but Leaving the Computer Vulnerable: Factors Inhibiting Home Users' Adoption of Software Firewalls," *Decision Support Systems*, 46(1), 254 - 264.
- Li, Y.(2011), "Empirical Studies on Online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Literature Review and an Integrative Framework,"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28, 453-496.
- Li, Y.(2012), "Theories in Online Information Privacy Research: A Critical Review and an Integrated Framework," *Decision Supports Systems*, 54, 471-481.
- Liao, C., C. Liu, and K. Chen(2011), "Examining the Impact of Privacy, Trust and Risk Perceptions beyond Monetary Transactions: An Integrated Model,"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and Applications*, 10, 702-715.
- Liu, C., J. T. Marchewka, J. Lu, and C. Yu(2005), "Beyond Concern—A Privacy—Trust—Behavioral Intention Model of Electronic Commerce," *Information and Management*, 42(2), 289-304.
- Malhotra, N. K., S. S. Kim, and J. Agarwal(2004), "Internet Users' Information Privacy Concerns (IUIPC): The Construct, the Scale, and a Causal Model,"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5(4), 336-355.
- Park, Y. J.(2011), "Digital Literacy and Privacy Behavior Online," *Communication Research*, 40(2), 215-236.
- Pavlou, P., H. Liang, and Y. Xue(2007), "Understanding and Mitigating Uncertainty in Online Exchange Relationships: A Principle - Agent Perspective," *MIS Quarterly*, 31(1), 105-136.
- Pavlou, P. A.(2011), "State of the Information Privacy Literature: Where Are We Now and Where Should We Go?" *MIS Quarterly*, 35 (4), 977-988.
- Phelps, J. E., G. D'Souza, and G. J. Nowak(2001),

-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Consumer Privacy Concerns: An Empi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Interactive Marketing*, 15(4), 2-17.
- Singh, J.(1990), "A Typology of Consumer Dissatisfaction Response Styles," *Journal of Retailing*, 66(1), 57-99.
- Smith, H. J., S. J. Milberg, and S. J. Burke(1996), "Information Privacy Measuring Individuals' Concerns about Organizational Practices," *MIS Quarterly*, 20(2), 167-196.
- Smith, H. J., T. Dinev, and H. Xu(2011), "Information Privacy Research: An Interdisciplinary Review," *MIS Quarterly*, 35(4), 989-1015.
- Son, J. Y., and S. S. Kim(2008), "Internet Users' Information Privacy-protective Responses: A Taxonomy and a Nomological Model," *MIS Quarterly*, 32(3), 503-529.
- Stone, E. F., D. G. Gardner, H. G. Gueutal, and S. McClure(1983), "A Field Experiment Comparing Information-Privacy Values, Beliefs, and Attitudes across Several Types of Organiza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8(3), 459-468.
- Stewart, K. A., and A. H. Segars(2002),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Concern for Information Privacy Instrument,"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13(1), 36-49.
- Taylor, D. G., D. F. Davis, and R. Jillapalli(2009), "Privacy Concern and Online Personalization: The Moderating Effects of Information Control and Compensation," *Electronic Commerce Research*, 9, 203-223.
- Van Slyke, C., J. T. Shim, R. Johnson, and K. Jiang(2006), "Concerns for Information Privacy and Online Consumer Purchasing," *Journal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7(6), 415-444.
- Wallace, W. I.(1992), "Metatheory, Conceptual Standardization, and the Future of Sociology", in G. Ritzer (Ed.), *Metatheorizing*, New York, Sage, 53-68.
- Westin, A. F.(1991), Harris-Equifax Consumer Privacy Survey 1991, Equifax, 1991.
- Wu, K., S. Y. Huang, D. C. Yem, and I. Popova (2012), "The Effect of Online Privacy Policy on Consumer Privacy Concern and Trus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8, 889-897.
- Xu, H., H. Teo, B. C. Y. Tan, and R. Agarwal(2012), "Effects of Individual Self-Protection, Industry Self-Regulation, and Government Regulation on Privacy Concerns: A Study of Location-Based Services,"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23(4), 1342-1363.
- Yang, H.(2012), "Young American Consumers' Prior Negative Experience of Online Disclosure, Online Privacy Concerns, and Privacy Protection Behavioral intent," *Journal of Consumer Satisfaction, Dissatisfaction & Complaining*, 25, 79-202.
- Zhou, T.(2011), "The Impact of Privacy Concern on User Adoption of Location-Based Services," *Industrial Management & Data Systems*, 111(2), 212-226.

〈부록〉 최종 연구대상 요약

연구자	연구분야	프라이버시 염려의 조작적 정의	척도	측정항목 참고문헌	선행요인	결과요인
민병권, 김이태 (2006)	온라인 쇼핑	-	단일 차원	Milne et al. (2004) Phelps et al.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접 마케팅에 대한 태도 정보통제에 대한 욕구 정보노출의 부정적 결과 	-
이재신, 조희창 (2007)	온라인 위협판단	평소 온라인 위협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	단일 차원	-	-	-
이준기 외 (2007)	웹사이트 개인화 서비스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한 프라이버시에 대한 염려의 정도	단일 차원	-	-	• 서비스 수용성
최혁라, 신정신 (2007)	전자 상거래	B2C 웹사이트에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정보가 노출된 결과로 나타나는 프라이버시 상실 가능성에 대한 염려	단일 차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활용능력 지각된 취약성 	• 신뢰
백진현 (2008)	온라인 쇼핑몰	데이터 수집, 에러, 허락받지 않은 부가적 사용, 부적절한 접근 등과 같은 온라인 거래 시의 위협에 대한 염려	단일 차원 (CFIP)	Smith et al. (1996)	-	• 온라인 쇼핑에 대한 태도
유일 외 (2008)	전자 상거래	웹사이트에서 자발적 혹은 비자발적으로 정보가 노출된 결과로 나타나는 프라이버시 상실 가능성에 대한 염려	단일 차원	Dinev and Hart (2004, 2005-6) Eastlick et al.(2006) Malhotra et al.(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활용능력 사회적 인지 지각된 취약성 지각된 정보통제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 거래의도
이재신, 연보영 (2008)	미니홈피	미니홈피 이용자들이 평소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정도	단일 차원	Phelps et al. (2001)	-	• 자기노출에 대한 태도
이미나, 심재웅 (2009)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외적 환경 요인의 변화에 의해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하는 것에 대한 걱정	단일 차원	Buchanan et al. (2006)	-	• 프라이버시 보호전략
전윤나 외 (2009)	웹사이트	개인이 정보프라이버시에 대해 생각하는 개인의 성향	단일 차원	-	-	• 대응행동(무대응, 사적대응, 공적대응)
곽수환 외 (2010)	커뮤니티 서비스	수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에 대한 염려 통제: 조직에 제공된 개인정보가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에 따라 관리될 경우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및 통제력을 상실할 것에 대한 염려 인식: 조직의 정보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해 개인(정보제공자)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	다차원 (IUIPC)	Malhotra et al. (2004)	-	• 자아불일치

(계속)

연구자	연구분야	프라이버시 염려의 조작적 정의	척도	측정항목 참고문헌	선행요인	결과요인
김혜영 외 (2011)	스마트폰	-	단일 차원	Buchanan et al. (2006)	-	-
이성준 외 (2011)	마이크로 블로그	프라이버시 손실의 인지된 미래 가능성	단일 차원	-	-	• 자기노출에 대한 태도
정철호, 남수현 (2011)	SNS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지각하게 되는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염려 정도	단일 차원	-	-	• 지각된 유용성 • 지각된 즐거움 • 만족
김상현, 박현선 (2012)	위치기반 서비스	(프라이버시 염려 감소) 위치기반서비스를 통한 프라이버시 상실가능성에 대한 염려가 감소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	단일 차원	-	• 사회적 실재감 • 명성 • 모바일 활용능력 • 정보통제능력	• 신뢰 • 위치기반서비스 사용의도
박선화, 김광용 (2012)	SNS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 또는 정보통제에 대한 상실로 인한 프라이버시 상실 가능성에 대한 염려	단일 차원	-	• 정보수집 자기결정권 • 정보이용 자기결정권 • 정보관리 취약성	• 신뢰
장초 외 (2012)	웹사이트	-	단일 차원 (CFIP)	Malhotra et al. (2004) Smith et al. (1996)	-	• 적극적 행동(거부, 허위제공, 삭제) • 소극적 행동(탐색, 불평, 부정적 구전)
기소진, 이수영 (2013)	SNS	온라인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개인의 근심 및 걱정 정도	단일 차원	Buchanan et al. (2007)	-	-
나은영 (2013)	SNS (트위터)	프라이버시 염려, 걱정, 관심 등을 모두 묶는 개념	단일 차원	Cho and Hun (2011)	-	• 자기효능감 • 온라인 자기노출
이환수 외 (2013)	SNS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정보가 노출된 결과로 나타나는 프라이버시 상실 가능성에 대한 염려	단일 차원	-	• Personal information overload • Privacy risk	• Resistance attitude
김중기, 김상희 (2014)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에서 제공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	단일 차원	Dinev and Hart (2006) Smith et al.(1996)	-	• 프라이버시 위협 • 정보제공행동
김준우 외 (2014)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염려, 개인정보를 타인이 사용할 염려, 허락하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 염려	단일 차원	-	• 프라이버시 위협 • 프라이버시 침해경험	• 개인정보제공의도

(계속)

연구자	연구분야	프라이버시 염려의 조작적 정의	척도	측정항목 참고문헌	선행요인	결과요인
박남수 외 (2014)	SNS (페이스북)	-	단일 차원	Buchanan et al. (20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필공개수준 게시물공개수준
박현선, 김상현 (2014)	SNS	SNS를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 인식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정도	단일 차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SNS중단의도
신미향 (2014)	모바일 쇼핑	스마트폰 기반 쇼핑물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공한 프라이버시가 상실될 것에 대한 우려나 걱정	단일 차원	Dinev and Hart (2006) 최혁라, 신정신(200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편이성
안수미 외 (2014)	SNS	프라이버시의 중요성에 대한 염려 정도	단일 차원	Dinev and Hart (20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태도
이기호 외 (2014)	개인의료 정보	Collection: Concern about collection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Unauthorized secondary use: Concern about unauthorized secondary use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Error: Concern about error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mproper access: Concern about improper access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다차원 (CFIP)	Smith et al. (1996)	-	-
이동만, 장성희 (2014)	위치기반 서비스	기업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 걱정하는 정도	단일 차원	Smith et al.(1996) Zhou(2011) Jaing et al.(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치기반서비스 특성 (개인화, 위치인식, 지각된 위험) 개인적 특성(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이미나 외 (2014)	페이스북	다른 이용자에 의한 사생활 및 정보보안 침해와 잘못된 정보 게시 등에 대한 염려	단일 차원	Acquisti and Gross(20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공개 정도 개인정보공개 범위
이성준 (2014)	SNS	페이스북 뉴스피드 광고 이용 시 나와 관련된 소중한 정보들이 제3자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근심 및 걱정 정도 (단일)	단일 차원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태도
임병하, 강동원 (2014)	폐쇄형SNS (네이버 밴드)	수집: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너무 많이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에 대한 염려 인지: 정보제공자의 사전승인 없이 조직에서 최초 수집 목적과 다르게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염려 통제: 조직에 제공된 개인 정보가 개인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에 따라 관리될 경우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 및 통제력을 상실할 것에 대한 염려.	다차원 (IUIPC)	Malhotra et al. (20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적 사용의도

(계속)

연구자	연구분야	프라이버시 염려의 조작적 정의	척도	측정항목 참고문헌	선행요인	결과요인
장성호, 이기동 (2014)	SNS	SNS에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노출된 정보가 노출된 결과로 나타나는 프라이버시 상실 가능성에 대한 염려	단일 차원	-	• 프라이버시 위협	• 프라이버시 보호행동
장성희 (2014)	위치기반 서비스	위치기반서비스에서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어 나타나는 프라이버시 상실 가능성에 대해 걱정하는 것	다차원 (CFIP)	Smith et al.(1996) Zhou(2011)	• 위치인지	• 신뢰
김상현, 박현선 (2015)	SNS	The extent to which SNS users perceive a breach of their privacy by the use of SNS	단일 차원	-	-	• SNS 피로감
김용희 외 (2015)	IoT서비스	IoT 시스템의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관리에 대한 염려의 정도	다차원 (CFIP)	Angst and Agarwal(2009) Lee et al.(2013)	-	• IoT사용의도
김진성, 김종기 (2015)	전자 상거래	온라인 기업이 이용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염려하는 정도	단일 차원	-	• 지각된 정보 불투명성 • 지각된 행동 불확실성	• 신뢰 •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반응
박천웅, 김준우 (2015)	개인정보 제공	Collection, Secondary use, unauthorized access Concerns of giving out personal information	단일 차원	-	-	• 신뢰 • 개인정보제공의도
박철 외 (2015)	모바일 쇼핑	-	단일 차원	Tan et al. (2012)	-	• 모바일쇼핑만족도
신동희, 김용문 (2015)	SNS	SNS상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 불법 저장 및 검색, 비인가된 2차적 사용 등으로 인해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개인적인 측면에서의 근심 및 걱정 정도	단일 차원	-	• 사이버검열 • 프라이버시 위협	• 사용행동
엄명용 외 (2015)	웹사이트	인터넷 기업들의 정보수집, 통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한 사용관행	다차원 (IUIPC)	Malhotra et al. (2004)	-	• 인지도 유용성 • 자기효능감 • 정보보호활동
이주영, 강현정 (2015)	SNS	SNS에서 사용자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의 염려의 정도	단일 차원	Dinev and Hart (2004)	-	• 신뢰도 • 지속사용의도
강문영 외 (2016)	소셜 미디어	광고를 이용함에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개인의 염려 수준	단일 차원	Jarvenppa and Tractinsky(1999) Lee(2009)	-	• 인지도 용이성 • 인지도 유용성

(계속)

연구자	연구분야	프라이버시 염려의 조작적 정의	척도	측정항목 참고문헌	선행요인	결과요인
김민경, 최보름 (2016)	사물 인터넷	-	단일 차원	-	-	• 사용의도
김연중, 안병혁 (2016)	SNS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정보에 대해 우려하는 정도	단일 차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특성(사회적 실재감, 플로우) 이용특성(표현욕구, 마케팅정보) 정보특성(간결성, 최신성) 개인정보침해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라이버시 무관심 개인정보제공행위
김준우 외 (2016)	스마트 워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정도	단일 차원	-	-	• 구매의도
박천웅, 김준우 (2016)	사물 인터넷	Collection, Secondary use, unauthorized access Concerns of giving out personal information	단일 차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프라이버시 위협 정보 프라이버시 침해경험 정보 프라이버시 정책 정보 프라이버시 통제 	• 개인정보제공의도
박천웅 외 (2016)	온라인 정보제공	자신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단일 차원	Smith et al.(2011) Dinev and Hart (2006) Malhotra et al.(20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 프라이버시 위협 정보 프라이버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뢰 개인정보제공의도
엄준호, 김선경 (2016)	정부 웹3.0 서비스	사용자가 정보웹3.0서비스를 이용할 때 개인정보 및 데이터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믿는 정도	단일 차원	Siani et al.(2009) Savola et al.(2010) 전세하 외(2011) 윤은진(2012) 최영진(2012)	-	• 행동의도
윤일한, 권순동 (2016)	라이프 로그	개인정보가 요구되고, 공개되고 사용되어지는 정보에 관한 통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단일 차원	-	• ICT경험	• 잊혀질 권리
이애리, 안효영 (2016)	핀테크	The degree of concerns about individual information privacy related to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Fintech services.	다차원 (CFIP)	Smith et al. (19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영향 모바일 인터넷 활용능력 	• 사용자 저항

A Meta-Analysis on Privacy Concern in Korean Research

Sanghee Kim* · Jongki Kim**

Abstract

Korean research on privacy has lately been increasing in quantity but are still inadequate in quality. Hence it is necessary to collect all the Korean research on privacy carried out up till now in order to identify how they have been conducted and discuss the direction of the future research to be performed. Accordingly, this study collected Korean literature on the privacy concern construct that has been the core concept and carried out meta-analysis. In this study integrated based on the measuring model of privacy concern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privacy concern and other factors was thoroughly examined. We searched major social science database in order to conduct an integrated research on privacy concern and finally, this study includes a total of 49 research pap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the following. First, the antecedents of privacy concern did not appear as diversely as written in foreign literature but could be largely classified as personal characteristic, the other party's characteristic, social characteristic and informational characteristic. Second, although the foreign literature showed there have been active discussion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ivacy concern and trust, the most Korean literature showed privacy concern as an antecedent of trust, indicating they are not well aware of current developments. Moreover, the foreign literature used the most privacy risk as the determinant of privacy concern whereas the domestic literature showed the exactly opposite result. Third, the privacy concern construct has mostly been measured with uni-dimensional concept and the research with multi-dimensional concept has been mainly measured by CFIP and IUIPC model. As the time passes, the studies measuring according to their original purposes with the multi-dimensional measuring model are on a rise but there still are many studies measuring thoughtlessly without

* Post-Doc Research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Pusan National University,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clear understanding.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in the development of domestic privacy research in future by providing a general trend of Korean privacy research.

Key words: Privacy Concern, CFIP, IUIPC, Privacy Index, Meta-analysis

-
- 저자 김상희는 현재 부산대학교 경영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 프라이버시, 정보보안, 행동경제학 등이다.
 - 저자 김종기는 현재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경영정보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부산대학교 경영학과에서 학사를 마쳤으며, 미국 Arkansas State University에서 경영학 석사학위, Mississippi State University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연구분야는 정보보안관리, 프라이버시, 전자상거래, 기술경영, 행동경제학 등이다.